

[제목] **종들이 이겨내야 했던 2가지 것들(눅19:11-27)**

[일시] 2014년 10월 05일 주일낮예배설교안

[찬송] 찬21장 다 찬양하여라. 찬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PW: 믿음, MIW:핍박 가주어: 착하고 충성된 종

T.S: 믿음이란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다.

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문제제기

1. 서론

1)인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며, 예배중에 임재하시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 명의 비유를 통해서, 왜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의 갈 길을 찾지 못해 지금도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성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쉽게 그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일은 더 고려해봐야 할 일일 가능성이 큼니다.

사실 오늘날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가 치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십분 발휘하며 사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며 사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게 중에는 **그것 찾기가 어려워 자신이 걸어가야 갈 길을 찾기 위하여 예언사역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 때에는 **예언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언에 푹 빠지게 함으로써, 그 예언에 매여버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허다하며, 그래서 “예언대로 되겠지”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 하지도 않으며, 또 웅당 자신에게 예언받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낙망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금방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릴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사방이 뿔려 있어서 적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익혀서 그러한 자들만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혹은 작은 것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 없는 길을 우리가 걸 어갈 때에,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할, 꼭 극복해야 할 영역에 대해**

1)본문요약 및 의문점 제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이 떠나고 없을 때에 열 명의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한 므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장사를 해 본 적이 없는 종들에게 주인은 적어도 장사하는 법 정도는 알려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장사를 할 때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귀뜸이라고 해 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종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일들에 뛰어 들 수 있었으며, 또한 장사하다가 만난 수많은 어려운 일들에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2)청중적 접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할 때에 오직 행동함만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는 것처럼 가만히 손놓고 그냥 있을까요?**

3)본문문제배경

오늘 본문 말씀은 **A.D.30년경 예수께서 예리고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삭개오의 집에서 들러준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4)문제발생원인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재림하시게 될 것인데,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가 그 과도기에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잘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특히 열 명의 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종들 가운데 10명 정도면, 그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주요한 등장인물이 두 종류였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열 명의 종들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 귀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마을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주인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 본문의 **두 번째 주인공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열 명의 종들의 관점에서만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의 마을 사람들도 같이 말씀에 넣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직을 받아 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그 왕이 행한 심판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종류는 종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대해서는 상급이 주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책망을 주어지는 종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이 열 명의 종들의 주인이었던 그 귀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로서, 나중에는 원수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렇듯 주인을 반대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열 명의 종들이 장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장사를 해 본 일도 없을뿐더러, 이제는 주인과 원수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그 열 명의 종들은 장사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5) 문제 심리묘사

“주인이 미쳤나봐. 우리에게 장사맡천으로 준 돈이 고작 한 므나일 뿐인데, 그리고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는 장사를 나한테 하라고 시킨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인을 대적하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랴구? 미쳤어?” “차라리, 가서 몰매맞고 죽으라고 그러지, 왜 이딴 것을 시킨 담!!!”

3. 문제해결

1) 인간의 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굴거리는 그 마을들로 나가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인께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려 합니다.**

2) 하나님의 주권(방법, 심정)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그 아홉 명의 종들을 몰고러미 바라보시며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 보십니다.

가. 그 종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종들은 과연 그 마을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주인을 싫어하여 뒤로 사람을 보낸 채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 장사한다고 나온 종들을 그 마을 사람들을 **과연 기쁘고 즐겁게 환영해 주었을까요?**

사실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 자기에게는 단 한 번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피조물인지라 창조주와 전능자 하나님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며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작전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사용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니 과연 열 명의 종들은 거기에서 장사는커녕 살아남아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제가 지난 주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지난 주에 종들이 보고할 때에 첫째 종과 둘째 종들의 보고만이 나오고는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종류의 종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었지. ‘아마도 셋째 종부터 아홉째 종까지는 주인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장사하려 나갔지만 **좃딱 망해버린 사람들일거야**’라고 말이지.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들은 장사하려 나갔다가 그만 죽임당했던 자들이다. 돌에 맞아 죽었지.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장사를 잘 못 해서도 아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내 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당한거야. 그래서 그 날 결산하기 위한 자리에 나라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종들의 결산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내가 그들 위에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던 나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리. 그리고 나의 군사들아, 너희는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정말 그 비유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죽임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사도는 감옥에 갇혔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으며, 사도 요한의 형제 야보고는 헤롯왕에 의해 목베임을 참수당해** 순교했으며, **훗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받아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남길 수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9명 중에서 7명은 그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고가 생략된 경우도 몇은 있었지만 서슬퍼런 동네사람들에 나갔던 종들은 **십중팔구 그들에 의해 죽임당했을** 것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주인은 반드시 왕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반드시 자신의 고난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있는 주인의 말을 100%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충성의 다른 모습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누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나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자본금이 주

님으로부터 왔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오직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주신 것이니만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나의 영혼을 위해 열심히 사용해야지 하는 자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이용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자기에게 하십시오.

하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곧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계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승리관, 월계관)을 네게 주리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 일동안 주어지는 환난을 받는다 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왕노릇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왕궁간을 쓰듯, 천국에서도 왕노릇하는 자가 면류관(승리관)을 쓰기 때문입니다.,

4. 영적 법칙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 때문에, 단지 주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곤경에 처하고, 장사를 못해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오로지 주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에 대해 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 리를 가지하면 십 리를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5. 복과 결단

1)복

가. 헌신자가 받는 복

그 종들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던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났던 그 주인의 종들이 아니시오?” 하지만 만약 그때 그들이 “**예?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라고 했다 면, 그들은 혹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 입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그들을 과연 어떻게 대우해 주셨을까요?

첫째, 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진멸하셨습니다(27절) 둘째, 그들에게는 특별히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할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5:11-12 나로 말미암아(때문에) 너희를 욕하고(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으로 너희를 거슬러(반대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크기 때문이라)

마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은 평상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당한 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나타나게 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는 666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회개와 오직 천국만을 외치는 자들을 다 목베어서 죽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을 배격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간다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20:4-6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왕으로 통치하리니) 5 이는 첫째 부활이라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 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당함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로 직행하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부당함을 당해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시 119: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 청중의 더 큰 복

오늘날도 오로지 자신이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유로 인해 오늘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매질을 당하고, 가족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가족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이혼당하며, 가족으로 떠나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이라크와 시리아 국가에서 오로지 이슬람국가를 건립하고자, 이슬람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이 잘려 죽임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떤 대우를 해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않도록 생명을 주실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수년동안 우리 동탄명

성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마도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 줄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손 3-4대까지 이어지는 저주를 불러온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침상에 던져지고, 자식은 죽게 되며, 주변에 같이 있는 자들까지 환난에 던져진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얼마든지 드리게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서, 나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큰 일 났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사에 참석 안 하자니, 부모도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자식이라 할 것 같고, 참석 하자니,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으면 또 그들이 뭐라고 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에게 아주 큰 복을 선물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조아라집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들이 한결이가 있는데, 한결이는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에 관한 설교를 듣기 전에 그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상에 절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듣고 보니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알고는 후회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르고 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해야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면 당장에는 핍박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노략질하고 저주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2)결단

가. 결단의 필요성과 방법

지금의 시대는 참 과학이 발전하고 인격존중이 심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유선 성도같은 분도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서처럼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올 즈음에, 무려 8명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얻는 복과는 좀 다른 복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며, 그에게 왕노릇하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결단의 축복

고난을 견디어 내십시오. 핍박을 견디어 내십시오. 혹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은 못한다고 해도,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도 이미 자신의 목숨을 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을 믿으면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말했습니다.

롬8:17-18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애굽 바로왕의 왕자였던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11:24-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늘에서 영광이 주어집니다.

“나는 주의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하지만 나는 맞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천국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상이 클 것입니다.**

혹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없습니까? 그럼, 주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

1) 감사와 회개

- 주여, 충성과 더불어 고난의 유익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주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주여,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데 고난받기를 주저했나이다. 용서해주소서.

2) 장자권 누림의 결단

- 주여, 이제는 주님으로 인한 고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 주여, 이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 주여,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견디어 내겠습니다.
- 주여,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3) 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

-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고난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고통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 이제까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중의 복이었거늘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고난을 견딜지어다. 고난을 이겨낼지어다.

4) 오늘의 말씀의 핵심

1. 구원받은 후에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충성하는 일이었구나.
2.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과 똑같은 복이 주어지는구나.
3. 신실한 성도들이 대비해야 하는 것은 고난을 견디어 내는 일과 주님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일이로구나.
4.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이 것이 되고 그곳에서도 왕노릇하는 하는 자가 되는구나.
5.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주어진 고난도 달게 받는 자로구나.